정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서울시립대,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전격 지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월 22일 교내 창의혁신관 SI Arena에서 '싱가포르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인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립대의 주요 앵커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브릿지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경영촉진 사업'을 연계한 '2026년 글로벌 협력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사업화 전략과 해외 투자 유치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빌더인 '킬사 글로벌'과 대학·연구 기관 원천기술 기반의 공동 창업과 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딥테크 전문 벤처 크리에이터 '오리진 벤처스' 관계자가 연사로 참여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사전 선정된 5개 기업과 킬사 글로벌 · 오리진 벤처스 담당자 간 1: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현지 전문가와 함께 보유 기술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점검하고, 동남아시아 현지 실증과 국제 투자 유치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지난 10월 22일, '싱가포르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진행된 1:1 비즈니스 미팅.

이문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킬사 글로벌, 오리진 벤처스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본격화해 대학 내 우수 기술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호평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가 '2026 인천시민대학 종합 성과평가'에서 10개 대학 캠퍼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인천시민대학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대학·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타대는 올해 인천 시민 205명을 대상으로 기초 재무관리, AI 미디어, 클래식 음악 등 14개 강좌를 운영했다. 강의는 전공별로 학사·석사·박사 과정으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학습자들은 정규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며 학습자 간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참여, 지역 사회 연계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유타대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모든 강좌를 유타대 교수진이 직접 맡아 대학 수준의 전문교육을 제공했으며, 약 90%의 수료율과 높은 학습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삼육대, 미래 캠퍼스 비전 선포

삼육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SU-RISE 미래 캠퍼스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지상은 자동차 없는 녹지·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첨단 교육 시설과 학생 생활·문화·교류 기능을 집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역사와 교육 철학, 미래 교육 환경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겠다는 장기 구상이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은 "미래 캠퍼스는 삼육대가 지켜온 가치와 교육 철학을 미래의 교육 환경 속에 구현하는 장기적인 도전이다. 120년의 역사 위에 첨단 교육과 자연, 신앙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캠퍼스를 조성해 다음 12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